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3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박춘선,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영실,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65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출산을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도시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과 이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넘어 경제,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결합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출생한 신생아는 24만 9천명으로 2010년보다 52.9%(22만 1천명) 감소한 221,171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함. 특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2년 현재는 0.78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더욱이,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는 훨씬 심각해 2015년 1.0001명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22년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59명을 기록함.
-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중심 서울'을 표명하고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시정의 중요한 한 축인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도 책임있는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저출생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출산률 향상을 이끌어낼 난임가족 지원, 출산장려 지원 제도 정비, 출산 가구의 자녀양육환경 개선, 주거복지 문제, 일가족 양립 문제, 복지체계 개선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2년 11월 15일 유엔인구국(UNPD)는 전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넘었음을 공식 발표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발전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며 의미를 부여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 세계 최하위의 출생률로 심각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출생한 신생아는 24만 9천명으로 12년 전인 2010년보다 52.9%(22만 1천명) 감소한 221,171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새롭게 경신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도 2016년을 기점으로 1명을 넘지 못하고 2022년 현재는 0.78명을 기록하고 있다.
-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2022년 서울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2,500명으로 12년 전인 2010년의 93,266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다.
-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내놓는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380조 원 이상

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 서울시도 저출생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 3조 4천억원의 예산으로 88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저출생의 문제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진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교육 문제, 경제·산업 경쟁력 약화, 사회복지부담의 증가, 국방력 약화 우려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서울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최근 ‘아이 중심 서울’을 표명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난임가족 지원 확대’, ‘냉동난자 시술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저출생대책을 마련하며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어나가는 한 축으로 서울시의회는 심각한 저출생의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예측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3. 5.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